

밀과 쾌락의 질적 테스트에 관한 해석

김은미*

주제분류 윤리학

주요어 공리주의, 질적 차이, 표준적 해석, 비표준적 해석, 쾌락, 자격 있는 판단자

요약문

이 글은 밀의 공리주의 이론에 있어 가장 중요하며 또한 가장 논쟁적인 구절이기도 한 『공리주의』 2장 5절에 대한 기존의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 하며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려는 시도다. 밀이 주장하는 쾌락의 질을 이해하는 방식 혹은 그것을 테스트하는 방식에는 표준적 견해와 비 표준적 견해가 있다. Jonathan Riley(이하Riley)로 대표되는 표준적 견해는 본질적으로 질적 우월성을 지닌 쾌락이 존재하고 쾌락들 사이에는 엄격한 위계질서의 존재를 주장한다. 그리고 쾌락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질은 항상 양을 압도한다. 즉, 고급 쾌락은 항상 저급쾌락을 넘어서서 선택될 것이고 선택되어져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Christoph Schmidt-Petri(이하 Schmidt-Petri)로 대표되는 ‘비표준적 견해’는 두 개의 쾌락 중 하나가 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선택된다면 그것에 질적 우월성을 부여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두 해석 모두 밀의 의도를 완전히 드러내지 못했다. 필자는 Sanders(Ben Saunders)의 이론을 중심으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중앙대학교

1. 들어가는 말

“만약 두 가지 쾌락 중, 이 둘 모두를 충분히 경험해본 그런 사람들에게 의해서, 하나가 다른 것보다 훨씬 중시된다면, 설령 이러한 선택이 엄청난 양의 불만족을 수반한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그들은 그것을 선호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본성(nature)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쾌락의 양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적은 정도의 가치를 표현하는 더 큰 양에 비하여 그 선호된 즐거움에 질적 우월성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¹⁾

『공리주의Utilitarianism』 2장 5절에 표현된 이 구절은 밀(John Stuart Mill)의 공리주의 이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들 중 하나다. 밀에게 쾌락의 질적 차이에 대한 이러한 구분은 벤담(Jeremy Bentham)의 공리주의와 구별되는 특징이면서 동시에, 비록 이것이 전통적 공리주의에 대한 밀의 이탈을 의미하지 않는다해도, 벤담의 공리주의로부터의 독립 선언을 했다는 의미다. 이 구절은 그것의 중요성만큼이나 가장 많은 논쟁을 낳았던 부분이다. 논쟁이 되는 주된 이유는 밀이 그의 주저 『공리주의』에서 쾌락의 질적 차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 즉, 질적으로 고급스러운 쾌락은 양과 상관없이 쾌락의 본질적 특성으로 인해 반드시 선택되어지는지 혹은 적은 양의 선택이 질적으로 고급스러운 쾌락이 되는지에 관한 모호함에 기인한다. 이러한 밀의 태도는 후대의 많은 학자들에게 커다란 혼란을 야기한다. 쾌락의 질적 차이의 테스트에 관한 중요성을 인정하는데 동의하지만 그것의 해석으로 인해 발생하는 논쟁들은 후대 학자들로 하여금 공리주의자로서의 밀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 중 하나는 이 구절로 밀이 경험의 질(quality)을 소개함으로써 쾌락주의를 포기했음을 알 수 있다

1) John Stuart Mill, *Utilitarianism*, 12쪽.

는 것이다.

웨스트(Henry West)에 따르면, 고급 그리고 저급 쾌락들에 관한 밀의 입장은 세 가지 관련된 그러나 별개의 주장들의 혼합이다. 첫째, 쾌락들 사이에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 둘째, 그러한 쾌락의 몇몇은 질을 근거로 다른 것보다 우월하다. 셋째, 질적으로 우월한 것은 독특한 인간 능력들을 포함하는 그런 것이다.²⁾ 쾌락의 질적 차이에 대한 하나의 입장에 세 가지 개별 주장들이 혼합 되었다는 것에 동의를 하더라도 각각의 주장에 대한 불일치³⁾들이 존재한다. 불일치는 질을 이해하는 방식에 기인한다.

밀의 쾌락의 질(quality)을 이해하는 방식 혹은 그것을 테스트 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해석이 대립하고 있다. 하나는 본질적으로 질적 우월성을 지닌 쾌락이 존재하고 쾌락들 사이에는 엄격한 위계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질적으로 고급스러운 쾌락은 양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선택되어야만 한다. 다른 하나는 역으로 두 개의 쾌락 중 하나가 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선택된다면 그것에 질적 우월성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 구절을 둘러싼 해석들에서 전자와 같은 해석방식은 ‘표준적 견해’로 불리며 후자와 같은 해석방식은 ‘비표준적 견해’라 불린다. ‘표준적 견해 standard view’⁴⁾의 학자는 라일리(Jonathan Riley, 이하 Riley)가 대

2) Henry R. West, *An Introduction to Mill's Utilitarian Ethics*, Huei-chun Su, “Mill's distinction of higher and lower pleasures Revisited”, 2쪽 재인용.

3) 『공리주의』 2장 5절에 관한 해석의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밀 자신이 구체적으로 그것에 관해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듯 실제로 밀은 ‘질(quality)’의 특성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에 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 램프레히트(Sterling P. Lamprecht)는 “밀은 어떤 쾌락을 고상한 쾌락으로 만드는 질을 결코 규정하지 않았다. 그는 그 문제를 좋은 판단자의 취향 혹은 도덕적 감성으로 남겨두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좋은 판단자로 만드는 혹은 우리가 그들과 만났을 때 그들을 좋은 판단자들과 인정하는 구별 방식에 대해 결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 Sterling P. Lamprecht, *Our Philosophical Traditions*, 423쪽. Jonathan Riley, “Interpreting Mill's Qualitative Hedonism”, 418쪽 재인용.

표적이다. 반면 ‘비표준적 견해 non-standard view⁵⁾’는 슈미트-페트리 (Christoph Schmidt-Petri, 이하 Schmidt-Petri)로 대표된다. 표준적 견해는 “둘 모두를 적당하게 경험한 그러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다른 것에 제공된 양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어떤 것을 선택한다면 그 쾌락은 다른 것에 비해 질적으로 더 고급스럽다”⁶⁾는 입장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쾌락이 ‘고급스러운 질’에 속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그것들 각각의 양에 상관없이 저급한 질의 쾌락을 넘어서 선택될 것이다(혹은 선택되어야만 한다).⁷⁾ 반면 비표준적 견해는 “어떤 쾌락이 더 큰 양을 획득할 수 있는 다른 것을 넘어서 선택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선택된 쾌락이 다른 것보다 고급스러운 질에 속한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⁸⁾는 입장이다. 다시 말하면, “질적인 우월성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다른 것의 더 많은 쾌락에 비해 더 적은 쾌락을 선호할 때마다 존재한다.”⁹⁾ 이러한 두 견해들은 고급 쾌락의 평가에 있어서 완전한 반대적 입장이다. 쾌락의 질적 차이의 해석에 대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에 관해서는 동일한 주장을 한다. 비록 ‘자격 있는 판단자’에 대한 의구심을 남기고 있긴 하지만, 이 두 해석은 ‘자격 있는 판단자’의 선호에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 해석사이에는 합의할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쾌락의 질적 차이에 대한 이들의 해석의 차이는 무엇이고 그들은 서로에 대해 무엇을 비판하고 있는가? 두 학자간의 공통된 비판은

-
- 4) 이러한 표준적 견해에 속하는 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D. Brink, “Mill’s Deliberative Utilitarianism”, G. Scarre, “Donner and Riley on Qualitative Hedonism”, R. Crisp, *Mill on Utilitarianism*.
- 5) 이러한 비표준적 견해에 속하는 학자는 다음과 같다. W. Donner, “Mill’s Utilitarianism”.
- 6) Jonathan Riley, “Interpreting Mill’s Qualitative Hedonism”, 410쪽.
- 7) Christoph Schmidt-Petri, “Mill on Quality and Quantity”, 102쪽.
- 8) 같은 글, 같은 쪽.
- 9) Jonathan Riley, “Interpreting Mill’s Qualitative Hedonism”, 410쪽.

밑의『공리주의』 2장 5절의 오역에 관한 부분이다. Schmidt-Petri는 밑이 결코 표준적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대로 Riley는 Schmidt-Petri의 해석은 문헌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빈약한 논증을 제시한다고 비판한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해석이 고급 쾌락의 평가에 대한 밑의 입장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을까? 어쩌면 두 학자의 팽팽한 주장들로 인해 어느 한 쪽의 입장을 완전하게 지지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논문은 두 학자들의 이론을 중심으로 밑의 고급스러운 질에 대한 테스트의 방식을 고찰한다. 그리고 논의의 진행을 위해서, 표준적 견해와 비표준적 견해의 의미 그리고 두 학자들 사이에 전개된 비판점들을 제시할 것이다. 만약 이들의 밑에 대한 해석이 밑의 의도를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했다면 또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Saunders의 해석에 동의하여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쾌락의 질적 테스트에 관한 두 해석

1) Riley와 표준적 견해

쾌락의 질적 테스트에 관한 해석의 난점에도 불구하고 Riley가 주장하는 표준적 견해의 핵심은 질에 대한 형이상학적 주장으로 질적 우월성의 존재다. 그는 밑이 쾌락의 양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질적으로 우월한 쾌락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단지 쾌락으로서 어떤 쾌락이 다른 것보다 좀 더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최대의 총량’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질의 고급스러움’이다. 전자는 질의 문제와 별개로, x 가 y 보다 더 큰 양을 가지고 있다면 x 는 y 보다 가치가 있게 된다. 그것

은 x 가 양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이다. 후자의 방식에 의하면 ‘질적으로 고급스럽다’는 것은 x 가 “이 둘 모두 충분히 경험해본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것보다 훨씬 중시된다면, 그들은 그것을 선호할 것이다. …… 그리고 그들의 본성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쾌락의 양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공리주의』 2장 5절) 그리고 “따라서, 그러한 감정과 판단은 고급 능력으로부터 분리된 동물적 본성이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이루어진 쾌락에 비해 고급 능력으로부터 도출된 쾌락이 종류에 있어서, 강도의 문제와는 별개로, 선호될 수 있는 것으로 선언할 때, 그것들은 이러한 주제와 관련하여 동일한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다.”(『공리주의』 2장 8절) 만약 자격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이 유한한 y 의 수많은 단위 때문에 x 의 적은 양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느낀다면, x 는 y 보다 좀 더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x 가 질적으로 혹은 본질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이다.¹⁰⁾ 또한 『공리주의』 2장 6절 즉, “설령 그들이 ‘동물의 쾌락에 대한 완전한 허용’을 제공 받는다고 해도, 그들은 그들 삶(그리고 그들의 적절한 쾌락의 양)을 ‘저급한 동물’의 삶으로 교환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분명 몇몇 쾌락은 다른 쾌락보다 질적으로 고급스럽다는 것의 명백한 증명으로 이해될 수 있다.¹¹⁾ 또한 블링크(David Blinks)에 따르면 “밑은 고급스러운 활동들이 단순한 쾌락의 활동들보다 무한하게 혹은 사전적으로 더 큰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는 고급스러운 활동들의 가치는 저급한 쾌락의 양에 의해 압도될 수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¹²⁾

Riley에게 쾌락의 “질¹³⁾의 차이란 어떤 쾌락을 다른 것보다, 단지 쾌

10) Jonathan Riley, “Interpreting Mill’s Qualitative Hedonism”, 412쪽.

11) Kristin Schaupp, “Books before Chocolate? The Insufficiency of Mill’s Evidence for Higher Pleasures”, 269쪽.

12) David O. Blinks, “Mill’s Deliberative Utilitarianism”, 92쪽.

13) Christoph Schmidt-Petri, “On an Interpretation of Mill’s Qualitative Utilitarianism”, 166쪽. Schmidt-Petri에 의하면 표준적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질’

락으로서, 그것의 더 큰 양을 제외하고, 좀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는 질적 우월성을 고급 쾌락에 속한 내재적인 성질의 차이로 이해하며 몇몇의 쾌락은 다른 쾌락에 비해 우월하고 몇몇 쾌락은 다른 쾌락보다 하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자연스럽게 쾌락들 사이의 사전적 배열(lexical order)¹⁴⁾을 발생시키고 그들 사이의 순서를 결정짓는다. 사전적 배열은 두 가지 쾌락들 사이의 불연속성(단절)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그는 질적인 우월성에 관한 서열의 존재 근거에 대한 증거로 아버지 밀(James Mill)의 작품을 언급한다. 『인간 정신현상에 관한 제임스 밀의 분석』(1829)의 논평에서, “정신적인 종류의 쾌락에 자리잡은 다른 종류의 쾌락들의 계급이 있다고 확신한다. 특히 심미적인 느낌의 쾌락과 도덕감의 쾌락은 단순한 감각의 동물적 쾌락뿐만 아니라 단지 편의의 관념과 결합된 정신적 쾌락보다 질적으로 고급스럽다”¹⁵⁾

쾌락들 사이의 서열로 인한 질적 우월성을 지닌 고급 쾌락은 본질적으로 저급한 쾌락보다 좀 더 즐겁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양이 적은 고급스러운 것의 총량은 양이 많은 저급한 쾌락의 총량보다 좀 더 가치가 있다.¹⁶⁾ 그에게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질적 우월성에 무한의 관념¹⁷⁾을 연결시키기 때문이다. 고급 쾌락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의 방식은 바로 ‘본질적(essential)’인 방식으로 불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에스프레소는 필터 커피와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한다면-그 둘은 완전하게 혹은 본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것들이다-우리는 본질적인 방식에서 ‘질’을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에스프레소가 그것의 본질에 있어서 필터 커피와 다르다고 말함으로써 동일한 의미를 만들어 낼 수 있다.

- 14) 사전적 배열(a lexical ordering)은 사전에서 ‘a’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는 다른 글자로 시작하는 단어들보다 항상 앞에 놓인다. 이러한 의미에서 특별한 형식의 특징은 순서를 결정하는데 있어 다른 특징들보다 절대적인 우선권을 갖게 된다. Jonathan Riley, “What are Millian Qualitative Superiorities?”, 64-65쪽.
- 15) John Stuart Mill, “James Mill’s Analysis of the Phenomena of the Human Mind”, 223-36쪽, 239-42쪽, Jonathan Riley, “Interpreting Mill’s Qualitative Hedonism”, 413쪽 재인용.
- 16) Jonathan Riley, “What are Millian Qualitative Superiorities?”, 62-63쪽.

그것을 저급 쾌락에 비해 질적으로 우월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한의 관념 때문이다. 무한의 관념이 현실을 초월하는 상상력의 적극적 힘을 자극하여 좀 더 매력적이거나 장엄한 세계가 되도록 한다.¹⁸⁾ 질적 우월성은 저급 쾌락과 관련하여 유한하거나 혹은 제한된 정도의 차이보다 오히려 무한하고 혹은 제한 없는 한계의 차이로 이해된다.¹⁹⁾ 그로 인해 질적 우월성을 지닌 쾌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 결국 그에게 질적 우월성은 무한한 우월성으로 해석되며 저급한 쾌락의 유한한 총량은 결코 고급 쾌락의 무한한 우월성을 넘어설 수 없다. “두 종류의 쾌락의 유한한 총량과는 별도로 더 높은 종류의 한 단위는 더 낮은 종류의 한 단위보다 무한히(infinitely) 더 크다”²⁰⁾

질적 테스트와 관련하여 둘 모두를 경험해본 자격 있는 판단자의 선호는 밀의 철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다. 앞서 언급했듯이 어떤 쾌락을 다른 쾌락보다 좀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양적 우월성 그리고 질적 우월성이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자격 있는 판단자의 선호와 분리될 수 없다. Riley는 질적 우월성의 테스트, 즉 모든 사람 혹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선호라는 판단을 언급하지만 그것을 질적 우월성의 추상적 관념과 혼합해서 생각하지 말기를 충고한다. 왜냐하면 질적 우월성은 본질적이고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다음의 예를 통해 사람들의 선호와 질적 우월성을 동일시 할 수 없는 이유를 살펴보자. 만약 누군가 어떤 차가 다른 차보다 더 좋은 차라고 선언했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당신이 차에 대

17) Riley는 무한함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무한함은 실수(a real number), 크기(magnitude) 혹은 양(quantity)이 아니다. 인간 존재는 모든 종류의 쾌락의 현실적 무한함을 경험하지 못한다. 밀이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는 현실의 완전한 무한함이 무엇으로 보이는지조차도 인식할 수 없다. “무한함”은 단지 제한 없는 크기(an unlimited magnitude) 혹은 발생하게 될 존재의 끝없는 과정이다. Jonathan Riley, “What are Millian Qualitative Superiorities?”, 63쪽 각주.

18) Jonathan Riley, “Interpreting Mill’s Qualitative Hedonism”, 414쪽.

19) 같은 글, 같은 쪽.

20) Jonathan Riley, “Is Qualitative Hedonism Incoherent?”, 351쪽.

해 아무것도 모른다면, 당신은 그것을 선언한 사람에게 더 좋은 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을 수 있다. 이것을 밀의 테스트에 적용해보면, ‘두 차중에, 만약 둘 모두에 대한 경험을 가진 모든 혹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선호해야할 도덕적 의무감과 상관없이 분명한 선호를 제공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좀 더 바랄만한 차이다.’ 이러한 테스트의 해석에 따르면 만약 당신이 어떤 차가 최고의 차인지 알고 싶다면, 당신은 당신이 사는 지역의 자동차 판매원에게 물을 수 있다. 하지만 그 판매원은 어떤 차가 정말 최고로 좋은 차인지 말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판매원이 운전하는 차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며 그의 차를 보고 싶어 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고급스러운 차의 구입을 포기할지도 모른다. 만약 당신이 자동차 판매원의 전문가적 판단을 신뢰해서 그가 추천해준 자동차를 구입한다해도, 당신 차가 좋은 이유는 그 사람의 판단 때문이 아니라 그 차가 다른 차에 비해서 원래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 차를 다른 차보다 더 좋은 차로 만드는 것은 자동차 판매원의 판단이 아니다.²¹⁾ 이러한 자동차의 예가 제시하듯이 질적 우월성은 그것을 경험해본 판단자의 선호에 의해서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경험 있는 판단자들은 그것이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다. Riley는 판단자들의 선호 자체를 질적 우월성의 관념과 동일시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판단자들의 선호가 질적 우월성과 일치할 수 있지만 그들의 선호 그 자체가 질적 우월성인 것은 아니다.

2) Schmidt-Petri와 비표준적 해석

Schmidt-Petri가 주장한 비표준적 견해에 의하면, 밀은 만약 어떤 쾌락이 ‘고급 쾌락’에 속한다면, 그것이 그들 각각의 양과 상관없이 저급 쾌

21) Michael Hauskeller, “No Philosophy for Swine: John Stuart Mill on the Quality of Pleasures”, 432쪽.

락보다 우선하여 선택될(혹은 선택되어야만)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²²⁾ Schmidt-Petri도 Riley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해석을 지지하기 위해 『공리주의』 2장 5절에 호소한다. 그는 『공리주의』 2장 5절이 쾌락의 질에 관한 숙고들이 획득할 수 있는 양에 관한 숙고보다 자동적으로 (automatically) 중대한 것으로 해석되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공리주의』 2장 5절을 “만약 어떤 쾌락이 더 큰 양을 획득할 수도 있는 다른 것을 넘어서 선택될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선택된 쾌락이 다른 것보다 고급스러운 질에 속한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²³⁾고 해석한다. 그에게 질²⁴⁾은 Riley가 주장하듯 본질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그것은 양과 관련하여 평가될 수 있다. Schmidt-Petri는 결국 양이 적은 것이 질적으로 고급스러운 것에 속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가 이러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밀이 『공리주의』에서 결코 쾌락의 본질에 관해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쾌락의 질적 우월성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인식론적 방식으로 나아간다.

Schmidt-Petri는 와인의 유비²⁵⁾를 통해 비표준적 해석의 근거를 제시한다. 그는 와인의 고급스러움을 드러낼 수 있는 두 가지 경우를 설명한다. 그것은 와인의 양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와 와인의 양적인 차이가 존재할 경우이다. 우리가 두 병의 와인 중 어떤 것이 고급 와인인지

22) Christoph Schmidt-Petri, “Mill on Quality and Quantity”, 102쪽.

23) Christoph Schmidt-Petri, “On an Interpretation of Mill's Qualitative Utilitarianism”, 166쪽.

24) 같은 글, 같은 쪽, Schmidt-Petri는 ‘통상의(usual)’ 방식으로 질의 개념을 이해한다. 여기서 통상의 방식이란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질’의 용어 사용방식이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도요타가 현대차보다 좀 더 고급스러운 질에 속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통상의 방식으로 ‘질’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다. 차를 평가하는데 사용된 기준들이 주어졌다면, 도요타가 현대차보다 더 좋다고 말하는 것으로도 동일한 의미가 만들어진다.

25) Christoph Schmidt-Petri, “Mill on Quality and Quantity”, 103쪽.

알기 원한다면 와인 전문가의 선택에 의지해야한다. 그 와인 전문가는 저렴한 와인보다 고급 와인을 선호할 것이다. 동일한 양의 와인 a와 와인 b중 그 전문가가 와인 a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와인 a가 와인 b보다 고급이라고 믿을만한 이유를 갖게 된다. 그러나 만약 와인 a보다 와인 b가 양이 많다면 전문가들은 저렴한 와인 b를 상쇄시키기 위해 전체적인 총양을 획득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경우 와인의 고급스러움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다. 어떻게 와인 전문가는 와인 a가 고급 와인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Schmidt-Petri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질과 양을 소유한 두 사물들이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 와인 b가 적어도 와인 a만큼 풍부해야한다. 그래서 와인 전문가가 와인 a를 선택하고 거부된 와인 b가 와인 a보다 양이 더 크다면 고급스러움은 와인 a의 특징이 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Schmidt-Petri는 고급 쾌락이 항상 저급 쾌락을 넘어서 반드시 선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선택의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이 전체 행복에 더 많은 기여를 하느냐다. 그래서 그는 모든 고급 쾌락이 모든 곳에서 언제나 저급 쾌락의 모든 양에 비해 우월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두 개의 쾌락 중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에 어떤 쾌락이 전체 행복에 기여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밀이 쾌락의 본질에 관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 우월성의 결정 방법에 관한 주장을 한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 그러나 밀이 쾌락의 질적 우월성의 결정 방식에 대해 주장했다고해도, 그는 현실 세계에서 질적 우월성을 결정할 전문가가 누구인지, 또한 쾌락을 ‘충분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이 요구되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고 고백하고 있다.

3. 두 해석의 문제점과 대안

쾌락의 질적 차이에 관한 밀의 원문 해석에 있어 Schmidt-Petri와 Riley의 논쟁은 Schmidt-Petri가 한 학회지²⁶⁾에 기고한 논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몇 번의 반박과 대응이 오가면서 둘의 주장과 근거는 좀 더 명확히 드러났다.

쾌락의 질적 차이에 관한 그들의 비판은 무엇인가? 첫째는 『공리주의』 2장 5절에 관한 오역이고 둘째는 쾌락 대한 서로 다른 이해이다. Riley는 『공리주의』 2장 5절을 쾌락의 형이상학(쾌락의 본질)에 관한 것으로 이해한다. 반면에 Schmidt-Petri는 그것을 쾌락의 인식론(어떤 쾌락이 다른 쾌락보다 질적으로 우월한지를 결정하는 방식)에 관한 것으로 이해한다. 셋째는 각자의 주장에 대한 근거의 부족함에 기인한다.

Schmidt-Petri의 Riley에 대한 비판은 표준적 견해는 밀의 주장에 대한 오역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쾌락의 종류에 있어서 형이상학적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밀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Riley의 경우 본질적인 방식으로 질을 이해하는데 이러한 방식을 근거로 그는 쾌락의 형이상학적 차이를 만들어 낸다. 결과적으로 쾌락의 형이상학적 이해는 사전적 배열(lexical ordering)을 야기한다. 쾌락의 서열을 설정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어떤 쾌락은 고급스러운 것에 속하고 어떤 쾌락은 저급한 것에 속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쾌락들 사이의 단절을 의미하며 저급 쾌락은 고급 쾌락을 결코 넘어설 수 없게 된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질적 우월성에 무한함의 개념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아무리 많은 유한한

26) Christoph Schmidt-Petri, "Mill on Quality and Quantity", Jonathan Riley, "Interpreting Mill's Qualitative Hedonism", 그 후 Schmidt-Petri는 2006년 자신의 이해에 대한 Riley의 비판에 대답하는 논문을 기고한다, "On an Interpretation Mill's Qualitative Utilitarianism".

양의 저급쾌락이 있다고해도 무한함을 지닌 고급 쾌락은 항상 선택된다. 질의 차이는 양의 무한한 차이로 정의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반직관적일 수 있다. 우리는 결코 무한함의 관념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단정적 결과는 경험법칙을 제공하는 밀의 목표에 반하게 된다.²⁷⁾ Riley의 주장처럼 질적 우월성의 개념을 무한함에 연결시킨다면, 질은 양을 가진 무엇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밀의 질적 쾌락주의 의미를 축소시키거나 평이하게 만드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밀이 벤담과의 차별성을 주장하려는 의도 자체를 오인하는 것처럼 보인다. 밀의 벤담으로부터의 이탈은 질을 무한함으로 간주함으로써 다시 양적인 측면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에 반해 Riley의 Schmidt-Petri에 대한 반대는 그의 질적 우월성에 대한 설명은 밀이 인정한 쾌락주의와 양립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그의 해석은 문헌학적 증거와 철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Riley에 따르면, “어떤 쾌락이 더 많은 양을 획득할 수 있는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선택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선택된 그 쾌락은 다른 것보다 고급 쾌락에 속한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²⁸⁾는 Schmidt-Petri의 주장은 쾌락주의와의 모순을 가져온다. 즉, 이러한 주장은 많은 양이 아닌 적은 양을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쾌락주의와의 모순이 드러난다. 심리적 쾌락주의와 윤리적 쾌락주의는 모든 인간은 더 적은 쾌락에 대해서 더 많은 쾌락을 선호해야만 한다. 하지만 비표준적 견해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쾌락에 대해 더 적은 쾌락을 선호할 수 있고 선호해야만 한다고 설득한다.

또한 Schmidt-Petri는 모든 쾌락의 질을 양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쾌락은 양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는 질의 가치는 그것이 강도와 누군가 획득할 수 있는 총량에 호소하기 때문에 타당하다

27) Troy Booher, “J. S. Mill's Test for Higher pleasure”, 1쪽.

28) Christoph Schmidt-Petri, “Mill on Quality and Quantity”, 102쪽.

고 믿는다.²⁹⁾ 만약 우리가 Schmidt-Petri가 주장하는 것으로 질의 차이를 이해하게 된다면 밀이 『공리주의』에서 주장하는 부분과 같음을 일으킨다.

“따라서, 그러한 감정과 판단은 고급 능력으로부터 분리된 동물적 본성이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이루어진 쾌락에 비해 고급 능력으로부터 도출된 쾌락이 종류에 있어서, 강도의 문제와는 별개로, 선호될 수 있는 것으로 선언할 때, 그것들은 이러한 주제와 관련하여 동일한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다.” 『공리주의』 2장 8절

이러한 주장은 강도를 근거로 구별될 수 없는 어떤 쾌락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³⁰⁾ 두 쾌락의 질적 차이에 대한 밀의 견해는 분명 쾌락의 유형에 있어서의 차이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Schmidt-Petri는 동일한 종류의 쾌락, 예를 들면, 두 병의 와인 혹은 두 대의 차를 포함하는 예를 사용한다. 이러한 예들은 여전히 동일한 유형의 쾌락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가 있다.³¹⁾

물론 Schmidt-Petri는 자신의 견해가 쾌락주의와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그가 생각하는 ‘질’은 쾌락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가 아니라 각 쾌락이 산출하는 쾌락이 얼마인지를 측정한다. 그는 ‘어떤 쾌락’은 즐거운 느낌, 혹은 쾌락의 느낌이 아니라 즐거운 활동과 동일시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쾌락들 간의 선택은 활동 사이의 선택이다. 어떤 것의 존재물은 가능한 한 즐거움이 풍부(rich)해야만 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떤 것은 즐거움의 큰 양을 가져야만 하고 그 즐거움의 각각은 가능한 한 고급스러운 질을 소유해야만 한다.³²⁾ 그에 따르면 ‘양’은 쾌락

29) Kristin Schaupp, “Books before Chocolate? The Insufficiency of Mill's Evidence for Higher Pleasures”, 274쪽.

30) 같은 글, 같은 쪽.

31) 같은 글, 같은 쪽.

32) Christoph Schmidt-Petri, “On an Interpretation Mill's Qualitative Utilitarianism”, 174쪽.

들의 수가 몇 개나 되는지 측정하고 ‘질’은 어떤 하나의 쾌락이 가진 즐거움(즐거움들 각각이 산출하는 쾌락이 어느 정도인지)을 측정한다. 그가 언급한 예를 살펴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도요타는 현대차보다 좀 더 즐거운 운전 경험을 갖게 하고, 고장이 거의 없고, 전체적으로 수리비용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대차보다 고급스러운 질에 속한다고 고려될 수 있다. 다른 예는 당신의 부모님은 당신에게 닌텐도 게임보다 농구를 하는 것이 좀 더 가치가 있는 쾌락이라고 설득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농구는 우리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엄격한 규율을 가진 사회 환경에서 행동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들을 가르치고 사회적인 협동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반면에 닌텐도 게임은 재미는 있지만 단지 손과 눈의 협력과 움직임만을 증진시킨다.³³⁾ 그가 질을 쾌락의 풍부함으로 이해한다고해도, 그는 Riley와 비슷한 오류를 범하게 된다. 질을 무한함의 양으로 간주하지 않지만 결국 질을 양으로 환원시키게 된다. 이러한 주장 또한 밀의 이론을 양적인 어떤 것으로 되돌려 놓는다.

쾌락의 질적 차이의 테스트에 대한 Riley와 Schmidt-Petri의 두 해석 모두 밀의 의도를 완전하게 드러냈다고 주장하기에는 오류들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두 학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오류를 극복하고 밀의 의도를 적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다른 해석으로 Saunders(Ben Saunders, 이하 Saunders)³⁴⁾의 이론을 언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에 의하면 밀에 대한 Riley와 Schmidt-Petri의 해석이 모두 정확하지 않다고 비난한다. 그는 쾌락의 특성을 단지 양으로만 간주하는 것에 반대한다. Riley의 사전적 배열이 규칙은 될 수 없지만 예외상황은 될 수 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질을 무한함에 연결시키고 질이 항상 양을 압도한다는 것에는 반대한다. Schmidt-Petri의 경우 적어도 어떤 경우에 쾌락의 질이 양으로

33) 같은 글, 176쪽 각주 인용.

34) Ben Saunders, “Reinterpreting the Qualitative Hedonism Advanced by J. S. Mill” 참조.

교환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옳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한다. Saunders에게 쾌락의 척도 혹은 특성은 양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양과 질은 쾌락의 두 가지 다른 척도라고 주장한다. “다른 모든 것을 평가할 때는 양 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하면서, 쾌락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오직 양에만 의존해야만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³⁵⁾ 이 구절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밀은 쾌락의 특성을 양과 질 즉, 쾌락 평가의 척도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쾌락의 척도인 질이 양을 압도하거나 질을 양으로 환원할 수 있다는 주장은 오류이다 그리고 쾌락의 질적 차이가 양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 밀은 어떤 쾌락이 다른 것의 총량을 넘어서 선택이 된다는 것은 그것이 좀 더 고급스럽고 우월하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것을 평가하는데 질과 양 모두를 고려하는 것처럼 쾌락의 평가에 있어서도 오직 하나에만 의존하는 것을 피하라는 것이 밀의 의도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쾌락의 질을 고려하는 것에서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고급스러운 것인지를 아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Schmidt-Petri가 지적했듯이 밀은 『공리주의』에서 질의 본질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질의 본질보다는 어떤 쾌락이 다른 쾌락에 비해 고급스러운 것에 속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관심을 보인다. 그러면서 둘 모두를 경험해본 자격 있는 판단자의 선호를 결정적 판단이라고 간주한다. 밀에게 ‘자격 있는 판단자’의 선호는 중요했다. Riley는 질의 형이상학적 이해 때문에 자격 있는 판단자의 선호를 질적 우월성과 동일시하길 거부한다. 그런 의미에서 판단자의 선호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또한 Schmidt-Petri도 현실에서 누가 자격 있는 판단자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고 또한 쾌락을 충분히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난점을 지적한다. 물론 자격 있는 판단자들의 판단은 오류가 있을 수 있

35) John Stuart Mill, *Utilitarianism*, 12쪽.

다.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법률적 문제를 겪게 될 때, 우리는 사법의 평결에 의존한다. 우리는 이미 사법의 평결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 그 평결이 특별한 경우에 잘못되었다고해도 우리는 그것을 최종적으로 인정해야만 한다. 물론 이것이 사법 평결의 무오류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호소할 최고 법원이 없다면, 그러한 평결은 수락되어야만 한다.³⁶⁾ 밀은 말한다, “유일하게 자격이 있는 판단자들의 이러한 판단이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호소할 것이 없다.”³⁷⁾

4. 나오는 말

지금까지 밀의 공리주의의 특징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쾌락의 질적 차이에 관한 테스트에 대해서 Riley와 Schmidt-Petri의 주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들의 해석의 차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공리주의』 2장 5절에 기인하며 Riley의 주장처럼 질의 사전적 배열과 질을 무한한 양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과 Schmidt-Petri의 주장처럼 질을 양으로 교환할 수 있지만 질적 우월성이 항상 양을 압도해서 선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질적 차이의 테스트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은 밀의 의도를 완전하게 드러냈다고 주장하기에는 오류들이 존재하고 그것은 밀이 의도했던 중요성만큼 자격 있는 판단자의 선호에 무게를 두지 않는다.

두 해석의 오류들과 관련하여 Saunders의 해석은 질적 차이의 테스트에 관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는 쾌락의 척도를 단지 양으로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다른 척도인 질을 간주하게 된다면 쾌락

36) Ben Saunders, “Reinterpreting the Qualitative Hedonism Advanced by J. S. Mill”, 201쪽.

37) John Stuart Mill, *Utilitarianism*, 15쪽.

주의와의 모순과 질적 우월성을 양과 비교하게 되는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밀에게 중요한 것은 쾌락의 본질이 아니라 어떤 쾌락은 분명하게 다른 쾌락보다 고급스러운 것에 속한다는 것이고 어떤 것이 좀 더 고급스러운 쾌락인지를 아는 방식이다. 이러한 밀의 진정한 의도를 이해한다면, 쾌락의 질적 차이를 알고 고급 쾌락을 선택하는 자격 있는 판단자의 평결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들이 요구된다. 이를테면 진정한 의미의 쾌락주의, 자격 있는 판단자의 중요성에 대한 근거들, 자격 있는 판단자를 판단하는 방식들 등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Ben Saunders, “J. S. Mill's conception of Utility”, *Utilitas*, Vol. 22, No. 1, 2010.
- _____, “Reinterpreting the Qualitative Hedonism Advanced by J. S. Mill”, *Journal of Value Inquiry*, 45, 2011.
- Christoph Schmidt-Petri, “Mill on quality and quantity”, *The philosophical Quarterly*, vol. 53, No. 210, 2003. 1.
- _____, “On an Interpretation of Mill's Qualitative Utilitarianism”, *Prolegomena*, 5, 2006.
- David Brink, “Mill's Deliberative Utilitarianism”,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vol. 21, No. 1, 1992.
- Geoffrey Scarre, “Donner and Riley on Qualitative Hedonism”, *Utilitas*, vol. 9, No. 3, 1997.
- Henry R. West, *An Introduction to Mill's Utilitarian Eth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2004.
- Huei-chun Su, “Mill's Distinction of Higher and Lower Pleasures Revisited”, the 1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Utilitarian Studies, 2012, 8.
- John Stuart Mill, *Utilitarianism*, The Library of Liberal Arts, Oskar Piest(ed), 1957.
- _____, “James Mill's Analysis of the Phenomena of the Human Mind”, *Collected Works of J. S. Mill*, J. M Robson(ed)
- Jonathan Riley, “Interpreting Mill's Qualitative hedonism”, *The philosophical quarterly*, vol. 53, No. 212, 2003, 7.
- _____, “Millian Qualitative Superiorities and Utilitarianism”, Part II, *Utilitas* vol.21, No. 2, 2009, 6.

_____, “On Quantities and Qualities of Pleasure”, *Utilitas* vol. 5, No. 2, 1993.

_____, “What are Millian Qualitative Superiorities?”, *Prolegomena* 7, 2008.

Kristin Schaupp, “Books before Chocolate? The Insufficiency of Mill's Evidence for Higher Pleasure”, *Utilitas*, Vol. 25, No. 2, 2013.

Michael Hauskeller, “No Philosophy for Swine: John Stuart Mill on the Quality of Pleasures”, *Utilitas*, Vol. 23, No. 4, 2011.

Sterling P. Lamprecht, *Our Philosophical Traditions*,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1955.

Troy Booher, “J. S. Mill's Test for Higher pleasure”, *Studies in the history of ethics*, 2007, 12.

J. S. Mill and the Understanding on the Qualitative Differences Between Pleasures

Kim, Eun Mi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oint out the problem of understanding para. 5 of ch. 2 of *Utilitarianism* and to seek the possibility of a new understanding. There are two ways to understand the quality of pleasure or test it: the standard view by Jonathan Riley and the non-standard view by Christoph Schmidt-Petri. The standard view says that quality always overcomes quantity in evaluating pleasures. That is, higher pleasure ought to be chosen over lower pleasure regardless of quantity. This means that there is essentially a superior pleasure in quality and there is a distinct hierarchy of pleasures. The non-standard view says if some pleasure is chosen over another available in larger quantity, then we are justified in saying that the pleasure chosen is of higher pleasure than the other. But neither of them did showed John Stuart Mill's intention. What is Mill's view about the distinctions of quality? I aim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a new understanding based on Saunders(Ben Saunders)'s theory.

Key words: Utilitarianism, The difference in quality, Standard view, Non-standard view, Pleasure.

김은미 e-mail: platonsilver@hanmail.net

철학탐구 제40집

투 고 일	2015년 10월 25일
심 사 일	2015년 10월 30일
게재확정	2015년 11월 10일